

자기소개서 : 한국정보과학회 2019년도 차기회장 입후보

1. 소속 및 성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박희진
2. 자기 소개(1면 제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박희진입니다. 저는 그동안 한양대학교에서 15년 이상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과학회 활동(컴퓨터이론연구회 위원장,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위원장, 상임이사, 이사, 논문지 편집위원)을 해왔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과학회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과학회를 한 층 더 발전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회장님들의 학회 운영 방식은 학회가 소사이어티와 연구회를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운영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우리 학회는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고 최근 대표적 성과는 소사이어티(연구회) 회계의 중앙 관리시스템의 정착입니다. 그러나 최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보과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때 정보과학회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리드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열정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회원님(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데 안타깝게도 이 분들은 대체적으로 정보과학회에 무관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학회가 이 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사이어티, 연구회, 지부가 적극적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수렴된 의견들을 학회가 무시하지 않고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의견 수렴 방식이 학회에 도입되어야 합니다.**

제가 학회 내에서 여러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그리고 한양대에서 보직(소프트웨어융합원장, 전공주임)을 맡아서 활동하는 동안 상향식 운영 방식의 장점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의 의견(특히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듣고 그 분들과 함께 고민하면 제가 혼자 고민해서 결정할 때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출마소견서에는 상향식 의견 수렴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와 더불어 정보과학회 회원 분들과 추천인들께서 저한테 제안하신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제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과학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위원장(2018-현재) 및 위원(2010-현재)
- 정보과학회 컴퓨터이론연구회 위원장(2016-현재)
- 정보과학회 상임이사(2016), 이사(2014, 2017-현재) 및 논문지 편집위원(2011-현재)
-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원 원장(2016-2018): 학생 3000(명/년) 기초교육 총괄 담당
-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전공 전공주임(2013) 및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2003-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BK연구교수(2003)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학사(1994), 석사(1996), 박사(2001))

출마소견서 : 한국정보과학회 2019년도 차기회장 입후보

1. 소속 및 성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박희진교수
2. 출마 소견(1면 제한)

Top-down과 Bottom-up의 조화로운 소통

최근 정보과학회에서는 연륜 있고 경험 많은 회장님들께서 top-down 시스템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 결과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 중에 하나는 소사이어티(연구회) 회계의 중앙 관리시스템의 정착입니다. 이제는 ACM처럼 소사이어티(연구회, 지부)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bottom-up 시스템 확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차기회장에 당선된다면 제일 먼저 회원, 지부, 연구회, 그리고 소사이어티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학회 실적만을 위한 불필요한 행사를 없애고 수렴된 요구사항을 달성하는데 학회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추천서를 받는 과정에서 회원님들과 소통을 통하여 수렴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과학회 영문저널의 조속한 SCI(E) 등재: SCI(E) 등재 저널을 가진 다른 학회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2. BK 사업단에서 컴퓨터분야와 전자분야의 분리: 정보기술 사업단으로 통합되어 있으면 차기 BK사업에서도 컴퓨터 분야는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분리 필요.
3. 학회 실적만을 위한 불필요한 행사 자제: 실질적인 수요가 크지 않은 행사를 개최하고 회원들에게 등록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소모적인 행사를 자제하고 더 시급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학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함.
4. 소사이어티(연구회, 지부)의 자율적 운영 보장을 법제화: 소사이어티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여 소사이어티가 보다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5. 학회와 산업체간의 실질적 산학협력의 활성화: 지적재산권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산업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의 산학교류의 채널 구축 필요.
6. 온라인 회의를 통한 전국 회원의 의사 결정 참여 확대: 오프라인 회의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회의를 활성화하여 더 많은 회원의 의사 결정 참여 확대 필요.

제가 차기회장에 당선된다면 회원님들의 요구사항을 공개적으로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된 요구사항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은 요구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해 학회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소사이어티(연구회, 지부)와도 논의하여 ACM처럼 소사이어티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정보과학회에 확립된 top-down 시스템에 **회원이나 소사이어티에서 요구하는 것을 회장이 수행하는 bottom-up 시스템을 추가하여 양방향 소통**이 모두 가능한 학회를 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